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 작업의 조형효과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Effect of the paper operation
in the Modern Fashion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김 정 신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
Full-time lecture : Kim Jung-Sh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이의 조형효과 |
| II. 종이의 기원 및 성질 | V. 결론 및 제언 |
| III. 종이 조형의 특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ive a new modern light to a paper and search for a possibility of a paper as a new formative material. And then, this study wants to suggest the formative effect of the paper operation as one technique which creates the idea of fashion design, and to contribute in enlarging the possibility of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a paper is found to be expressed in new moulding forms by the various formative experiments because a paper can be easily and variously used as the material of expression. So the moulding images of paper operation are provided for the idea of fashion design and give much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Secondly, through the new light on a paper as the formative material, it is demonstrated that a paper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many forms and the enlargement of the area of expression in the fashion design.

Thirdly, in the fashion design, the formative effect of the paper operation not only give a variety to silhouette but also forms one technique of creation of new materials

* 1996년도 한남대학교 교비 연구비에 의해 연구됨.

by the application for the effect of the quility of the material.

Fourthly, the technipue of folding a paper which is one technique of formative art is found to give expressions both to plane forms which can be folded without any increase or decrease of thickness and to the three-dimensioned forms with thick and cubic sense.

And lastly, the formative effect of the paper operation is shown to be the source of idea that acquires a new formative beauty and t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gives various formation to the modern fashion.

I. 서론

예술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를 수용하면서 발전 되어지고 있으며, 모든 예술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패션은 자기의 표현 수단으로서 개인의 성격과 자아개념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각적인 것임과 동시에 미적감각이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정신문화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창조적 행위를 지향해 왔으며,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로 대두되면서 형태와 재료에 대한 다양한 관심속에서 새로운 표현 욕구가 시도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현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새로운 조형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의 개성있는 시각은 창조적 조형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종이를 조형매체로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표현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의상디자인을 창출해내는 창작적 표현활동의 하나로서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적 시각으로 종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조형매체로서의 또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종이 작업에 의한 조형효과를 의상디자인 아이디어 창출방법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의상 디자인 표현영역의 확대 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범위는 종이의 기원 및 성질과 종이조형

의 특성 등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조형 효과를 우연적 조형효과와 유기적 조형효과로 분류하여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여성복에 한정하였으며, 현대 패션에 표현된 종이조형 효과중 종이의 구기기, 구부리기, 구멍내기, 접기, 자르기, 새김질, 엮기, 다면체 구성에 의한 조형효과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자료는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국내 외 여러 패션잡지, 작품집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에 주로 사용된 참고 자료들은 Collections, Fashion news, Collezioni, Elle, Book Moda 등의 패션지에서 발췌하였다.

II. 종이의 기원 및성질

인지가 발달하고 생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은 공동 생활단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상호교류의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생활환경의 보다 큰 광역화와 더불어 의사전달·언어표시의 대응으로서 약속된 그림이나 상형문자를 운반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게 된 당위성으로부터 종이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 고대 서사재료 중 최초로 종이와 유사한 물질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 들이다. B.C 2500~2000 년 사이에 이집트인들은 나일강변에 무성히 자란 야생초인 파피루스의 면에 그들의 기록을 남겼다.²⁾ 파피루스는 양파처

1) 諸洪圭, 韓國史小考,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p.29.

2) "종이" 「종이대백과사전」 제 5권, p.560.

럼 얇은 것이 몇겹 싸여져 있으므로 이 껍질을 벗겨 여러 조각을 상하로 겹쳐 압력을 가하면 끈끈한 수액이 흘러나와 서로 응결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건조시켜 기록에 이용한 것이 종이의 시초이고, 영어 paper의 어원도 파피루스(Papyrus)에서 기인되었다고한다.³⁾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A. D 105년 중국 후한의 채륜이 발명한 것으로 고급의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였다.⁴⁾ 이처럼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 서양에 전래된 것은 100년 후였으나 서양의 급속한 과학기술은 제지법의 진보를 촉진시켜 1450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계기로 종이의 사용은 대중화,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⁵⁾ 우리나라에 종이 존재하여 사용되어 왔음은 낙랑 시대였음을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종이 처음 만들어 진 것은 고구려 시대의 승려 담징에 의해서다.⁶⁾

구체적인 예로써 이조시대 여인들은 한지에 자연 염료로 물을 들여 생활가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서민층에서는 장판지를 나무틀에 발라서 옷장 등을 만들어,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잇점을 살려 이용했으며, 의식에 이용된 가면, 여성의 악세사리 용품(주머니, 지갑, 조바위함)의 활용과 함께 공예품으로써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오늘날 종이는 예술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종이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재료적, 구조적인 기능이 다양해 지고 그 활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종이란 식물성 섬유를 분해시켜 섬유소로 만든 뒤 물에 풀어서 어떤 종류의 매개체를 통해 건져낸 필터(filter)상태의 얇은 조직이다.⁷⁾ 종이는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이차원적 소재로는 천에 가까우나 천과

같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천보다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호늘호늘 하지 않다. 즉 유연성을 갖는 일면 힘이 좋아 모양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흡수, 흡유성을 갖는 동시에 불투명함을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마지막 뒤처리가 간단하다.⁸⁾ 또한 원하는 형태의 작품 구성이 가능하며 다른 재료와 쉽게 혼합될 수 있다.

종이는 서로 상반된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거칠다-매끄럽다, 투명-불투명, 무광택-광택, 두껍다-얇다, 가볍다-무겁다, 표면의 색이 차갑다-따뜻하다, 구겨지기 쉽다-어렵다 등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종이의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구부리기(Bending), 말기(Curling), 접기(Folding), 새김질(Scoring), 자르기(Cutting) 엮기(Interlacing), 다면체 구성에 의해 변형되며, 이 밖에도 구멍내기(Punching), 넓히기(Expanding), 잇기(Join), 짓 구김(Crush up), 찢기(Break up), 겹치기(Laminating), 붙이기(Glueing), 잡아뜯기(Pluminating)에 의해서 의식적 또는 우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⁰⁾ 종이는 평면으로든 입체조형으로든 제작과정이나 후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을 더 할 수 있는 특성도 지닌다. 종이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으므로 조형언어를 표현하는 재료로써 공예, 회화, 조각, 판화등 예술의 모든 영역을 넘나들며 혼합매재(媒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현재료로서의 특성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표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산뜻한 점과 착색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후한 맛이 더 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따라서 종이의 다양한 성질을 이용하여 디자이너

3) “종이” 엄광섭, 조형 재료학, 서울: 이화출판사, 1984, p.198.

4) 이광진, 이조초기의 제지업, 역사학보 제 10권, 역사학회편, p.2.

5) H.W, Janson, 김윤수역, History of Art, 서울: 삼성출판사, 1987, p.191.

6) 諸洪圭, 韓國史小考,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p.29.

7) Jules Heller, Paper making, N.Y.Guptil Publication, 1978, p.23.

8) 朝倉直己, 紙 じょよら構成・デザイン, 東京: 미술출판사, 1982, p.241.

9) 高山正喜久, 立體構成の基礎, 東京: 美術出版社, 1984, p.25.

10) Libid., p.26.

11) 윤희주, 입체구성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pp.8-11.

들은 조형매재(媒材)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응용성을 개발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Ⅲ. 종이 조형의 특성

오늘날 예술가들은 종이를 예술창조의 진정한 예술 매재(媒材)로 간주하고 입체적인조형을 시도하여 종이의 풍부한 표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또 미술 표현 매재로서의 종이의 발견은 예술가들에게 현대 조형예술 영역의 확대와 함께 재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제지에 의해 제

조된 종이는 재료로서의 인식을 벗어나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크 폴락(Mark Pollack)의 작품 〈그림 1〉은 종이를 규칙적으로 접어 어류의 흔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도미니크 디마르(Dominic Dimare)의 작품 「MOON BOX」 〈그림 2〉은 반구형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종이 조형을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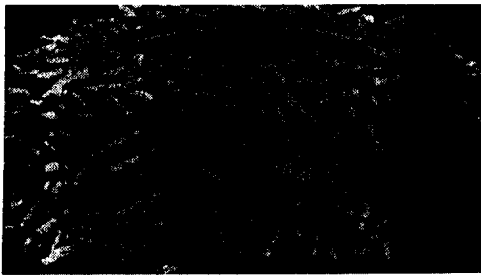
개리트렌담(Gary Tremtharm)의 작품「Basket」 〈그림 3〉은 종이를 Coiling 기법으로 제작한 입체형태로 종이조형의 제작적의미가 강조되었다. 장연순 작품 〈그림 4〉은 접기기법을 이용한 조형물로써 새로



〈그림 1〉 Mark Pollack 작
(Paper construction III, 1978)



〈그림 2〉 Domminic Dimare 작
(Moon Box, 1974)



〈그림 3〉 Gray Trethem 작
(Basket, 1976)



〈그림 4〉 장연순 작
(장연순 섬유예술전, 1992)

운 창작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종이는 예술적 표현 뿐 아니라 조형매재(媒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형매재(媒材)로서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큐비즘(Cubism), 미래주의의 다다이즘(Dadaism), 슈리얼리즘(Surrealism)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사조의 전개로 인한 실험정신의 영향이 크다. 이 점에서 조르류 브라크(George Braque)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의 큐비스트에 의해 시도된 뽀삐에폴레(Papier colle)는 현대 미술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대상을 하나의 통일로 파악하려는 고대 예술가들의 소망을 큐비스트들은 하나의 화폭에 대상을 시간의 경과속에서 분석하여 구조적인 조화속에 통합해 보려는 노력으로 나타났고 1916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모든 예술적 창조를 종합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공예 부문을 하나의 새로운 건축에 불가분의 구성요소로서 재통합하는 것을 지향하였다.¹²⁾

이러한 영향아래 예술가들은 독립된 분야의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예술 각 분야의 구획을 대담하게 뛰어 넘어 폭 넓은 조형실험가로서의 정신을 갖게 되었다.

현대 디자인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바우하우스에서는 창조적 미술교육으로 조형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창조성을 신장시키고 조형적 기초능력과 디자인적 감각을 길러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예민한 관찰력을 길러 용구와 기능적 특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힘을 기르며 창조하는 양식이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표현의 범위를 넓혀 독창적이고 다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예로서 1923년 바우하우스에서 조셉 알베르(Josef Albers)는 종이를 연구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였다.¹³⁾ 그 곳에서 학생들은 한 장의 종이로 그들 나름대로 자르고 구멍뚫고, 직물로 짜고, 무늬를 조각하고, 쌓아 올리는 등의 종이의 조형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실험을 하였다.그리하여 종이라는 재료의

성질을 강조시켜 그 재료가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시켰고 구성재료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고 형태만 변형시킴으로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재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것은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강도 유연성 등의 특성을 이용한 작품제작을 실험했던 것으로 종이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예술가들에게 일깨워 주는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1935년 전후로는 종이 조각(Paper Sculpture)이 유행하여 상업미술 분야에서 성행하였는데 종이가 예술매재로서 예술가의 의도를 실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입체조형의 실험재료로써 종이의 구조적인 조형 가능성이 널리 알려져 여러 형태의 실험을 시도 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팝아트(Pop Art)의 태도에 의해 대두된 오브제(Object)회화의 재발견, 그후 보여지는 미니멀아트(Minimal Art)와 개념예술(Concepture Art)의 출현으로 피동적 표현재료에 불과했던 종이가 미술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 되었으며 다른 재료와의 과감한 혼용으로 종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졌다.

1970년대 이후 종이는 현대 예술의 탈출구를 찾기위한 방법으로서 발전 되었고, 종이의 잠재적 기능에 대한 실험과 다양한 표현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종이의 미적 발견과 함께 예술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각 분야의 조형예술과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처럼 종이는 각 분야에 다양한 표현 매재(媒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이 조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3차원의 물체를 이해하고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이조형 효과

의상은 조형예술의 표현매재로 인식되면서 미적,

12) 이경성, 공예론, 서울: 수학사, 1984, p.230.

13) 한스.M.빙글러/김윤수(역), 바우하우스, 서울: 미진사, 1982. p.430.

조형적 표현을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응용제 작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이를 이용한 조형 성 표현은 디자인의 가장 기본된 연습의 하나로서 디자이너에게 조형감각을 함양시켜 자유롭고 창조적 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종이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면서 변형이 용이 하므로 평면성을 벗어나 2차원적 예술 로도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 들은 종이의 성질을 익혀서 종이를 입체는 평면의 연속이며 평면은 입체에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3차 원 디자인의 새로운 재료로 사용하여 우연적인 형태 창조와 유기적인 형태창조 등의 종이 조형 실험을 여러 가지 기법과 표현 방법을 통해 작업하고 변형 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조형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형 실험기법중 종이의 구부리기(Bending: 탄성변형), 구기기(Crush up), 구멍내기(Punching)의 성질을 이용한 우연적 조형 효 과와 종이의 접기(Folding), 자르기(Cutting), 새김질 (Scoring), 엮기(Intelacing), 다면체구성의 성질을 이 용한 유기적 조형 효과를 형상화한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분 석하고자 한다.

1. 우연적 조형 효과

우연적인 조형효과란 특정과정이나 재료의 효과로 우연히 형성되는 효과를 말한다.¹⁴⁾ 독창적인 작품의 창조를 위해서 제작습관이나 고착화된 관념을 버리 고 새로운 가치를 개척하기 위해서 재료와 기법과 형태에 관한 순수한 연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 인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종이에 의한 기 법 중 자르기, 찢기, 구멍내기, 구부리기, 구기기, 태 우기 등의 방법에 의해 우연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종이를 여러번 구기면 종이의 종류에 따라 잔 주름이 나타나며 더 이상 구길 수 없게 되면 전체적

으로 규칙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아주 매력적인 모양이 된다<그림 5>.¹⁵⁾ <그림 6,7>은 이와같은 성질 을 독특한 재질 효과로 적용시켜 표현한 작품으로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보여진다. Romio Gigli 작품 <그림 6>은 재질에 나타난 크고 작은 볼륨감이 리듬 감 있게 구성되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담한 실루엣의 형성으로 조형성을 강조시키고 있다. Yuki-ko Hanai 작품 <그림 7>은 작은 면들이 복잡하게 얽 힌 구조를 얹고 투명한 소재에 적용시켜 표현한 것 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섬세한 구조미를 느끼게 한 다.

종이는 얇아서 간단히 구부러지나 손을 때면 원래 의 평면으로 돌아가는 탄성변형이 일어나는데 Issey Miyake 작품 <그림 8>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표 현되어질 수 있는 조형효과 <그림 8>를 형상화 시킨 것이다. 이 작품은 굵기가 다른 굴곡이 리듬감있게 조화되어 시각적으로 강한 울동미를 느끼게 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소재에서 미래 지향적인 감 각이 보여진다.

<그림 9>는 종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소재를 이용 종이의 조형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종이는 접는 방법에 따라 그 모양이 무수히 변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ermes 작품 <그림 10>은 종이의 구부리기 성질을 스커트 부분에 적 용시킨 디자인으로 선이 겹치면서 크고 작은 볼륨감 을 형성하여 대담한 구조의 형태미가 창출되고 있음 이 보여진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 같은 성질 을 이용한 조형 효과라 할지라도 소재에 따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신우작품 <그림 11>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굴곡이 볼륨감을 형성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종 이를 구멍내기 방법으로 가공하면 새롭고 자극적인 구조와 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12,13>은 이러한 성 질을 응용하여 표현될 수 있는 조형효과를 독특한 재 질로 적용시킨 작품이다.

Hiroko Koshino 작품 <그림 12>은 울이 풀리는 소

14)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1991, p.43.

15) Franz. Zeier저/권영길, 김현중(역), 조형연습-PAPIER-, 대우출판사, p.15.



〈그림 5〉 구기기
(조형연습, p.45)



〈그림 6〉 Romio Gilgli 작
(Book Moda, '90 S/S)



〈그림 7〉 Yukiko Hanai 작
(Fashion News, '95 S/S)



〈그림 8〉 Issey Miyake 작
(Collections, '91-92 A/W)



〈그림 9〉 Issey Miyake 작
(Collections, '91 S/S)



〈그림 10〉 Hermes 작
(Book Moda, '94-95 A/W)



〈그림 11〉 이신우 작
(Collections, '92 S/S)



〈그림 12〉 Hiroko Koshino
(Fashion news, '95 S/S)



〈그림 13〉 오은환 작
(Elle, '94 S/S)

재를 선택 불규칙적으로 구멍을 뚫고 다시 울끼리 묶어 독특한 재질로 표현, 소재개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오은환작품 〈그림 13〉은 2겹의 소재를 겹쳐 구멍내기를 적용시킨 것으로 이중 구조적 표면 효과에서 시각적 흥미를 느끼게 된다.

2. 유기적 조형 효과

유기적 조형효과란 부드럽고 단순하며, 정돈되어

있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형태 창조를 의미한다. 즉, 자유곡선적이며, 유동성과 신장을 표시하는 효과를 말한다.¹⁶⁾

이러한 효과는 종이의 접기, 자르기, 접고 자르기, 새김질, 위기, 등의 방법에 의해 제작되어 질 수 있다.

Issey Miyake는 종이의 조형효과를 주제로 한 의상 디자이너중 대표적인 작가이다. 몸과 옷감사이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창조하고 이용하는 것을 디자인 포인트로 하는 그는 종이의 다양한 조형효과를 독특한 소재와 형태로 개발 시켜 발표함으로써 의상디자인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조형적 가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종이접기는 일종의 조형 예술로서 입체화하는 제일의 방법¹⁷⁾으로 조형적 측면 이외에 빈틈없이 납작하게 포개질 수 있다는 점과 두께의 증감없이 구조적 강도가 강해지는 성질이 있는데, Issey Miyake 작품 〈그림 14,15〉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조형효과 〈그림 16,17〉를 표현한 작품으로 새로운 형태 창조의 가능성과 다양한 입체 형태로의 개발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8〉은 Issey Miyake 작품으로 주름선이 만

16) 한석우., p.43.

17) 朝倉直己., P.295.

나 생긴 뾰족한 정점은 인체로부터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면서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으로 연결되어 생동적인 아름다움과 조형성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종이는 접는 방법에 따라 그 모양이 무수히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

Hiroko Koshino 작품 <그림 19>은 접기 기법을 응용하여 표현한 바람개비 모양을 디테일로 구성한 원피스이다. 단순하고 정돈된 분위기와 접힌 각이 방사적으로 연결되어 생긴 선에 의해 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김정신 작품 <그림 20>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선 접기를 반복함으로써 나타나는 조형효과 <그림 21>를 디테일로 적용시킨 작품이다. 독특한 구조미와 함께 우아하고 생동감있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아코디언 접기는 주름을 형성하는 기본 평행선에 대해 직선 방향으로 잘 움직여 등글러지므로 간단하게 2차적 부조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2>는 이러한 접기 기법을 적용시켜 표현한 작품이다. Junko Koshino 작품 <그림 23>은 크기에 변화를 준 1차적 아코디언접기의 표현으로 주름의 간격에 따라 입체감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새김질은 종이 표면을 누르는 작업으로 새김선의 연장이다. 종이의 얇은 특징에 의해 경쾌하고 아름다운 곡선이 생기며 무리하게 접어 구부린 곳에서 힘이 일단정지 되면서 스피드감이 떨어진다. <그림 24>는 이와같은 성질을 이용한 조형효과 <그림 25>를 주 디테일로 적용, 비대칭적으로 리듬감있게 구성하여 조형성을 강조시킨 작품이다. Lan Vin 작품 <그림 26>과 Thierry Mugler 작품 <그림 27>은 곡면의 연장효과를 입체적으로 살려 조형성을 강조시킨 것으로 구조적인 형태미와 개성있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종이를 자르면 심한 변형이 일어나므로 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 직선으로 자른 기다란 띠는 접혀지는 각도에 따라 운동감이 강조된다. 김정신 작품 <그림 28>은 이러한 조형효과 <그림 29>를 표현한 것으로 선이 리듬감있게 반복되어 강한 운동감이 느껴진다. 종이를

가로로 자른다음 틈을 만들며 붙이는 가공기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달아 늘어뜨리면 입체화되어 움직인다<그림 30>. Thierry Mugler 작품 <그림 31>은 이러한 조형효과를 주 디테일로 적용시켜 표현한 원피스이다.

동일한 모양의 구조들이 리듬감있게 연결되어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반복의 원리로 강조시킨 입체물에서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와 함께 독특한 구조의 형태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32>는 자른 종이끈을 엮어서 표현한 것으로 접은선을 넣지 않고 평면으로 사용해야 테이프처럼 구부리기 쉬운 것이 되어 섬유처럼 짜는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림 33,34>는 이러한 성질을 적용시켜 표현한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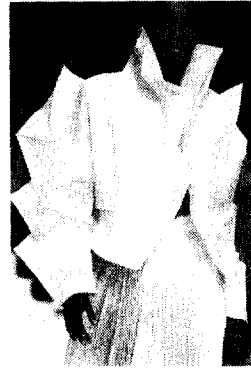
Maurizio Galante 작품 <그림 33>은 같은 폭의 천을 규칙적으로 엮어 재질로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재질감을 연출하였으며, 설윤형 작품 <그림 34>은 엮기 기법으로 모티브를 구성하고 이를 코트 중심에 강조시켜 구성함으로써 장식적인 디자인 개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다면체 구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기계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명쾌하고 지적인 인상을 준다. 또한 수학적 질서를 갖는 일정규칙에 준하여 만들어지므로 그 질서와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입체조형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¹⁸⁾ Thierry Mugler 작품 <그림 35>은 다면체의 조형효과 <그림 36>를 비대칭구조로 균형 있게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함축된 구조미와 조형성이 돋보인다. 김지희 작품 <그림 37>은 4각형의 편평한 종이를 접었을 때 입체감이 강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모양과 크기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구조 <그림 38>를 디자인 모티브로 구성하여 연결시킨 입체형태에서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여진다. Kansai Yamamoto <그림 39>와 Hishinu Ma 작품 <그림 40>은 다방향 접기를 이용한 조형효과<그림 41>를 적용시킨 디자인이다. 기하학적 형태의 특징인 규칙적인 구조에서 딱딱하고 명확한 분위기와 함께 이지적이고 미래적인 조형감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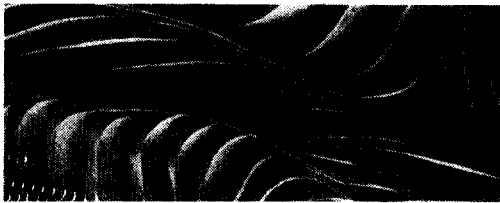
18) 한석우.,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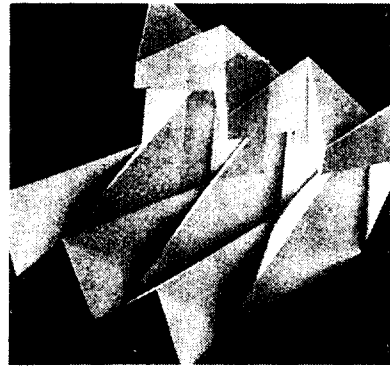
〈그림 14〉 Issey Miyake 작
(Collections, '95 S/S)



〈그림 15〉 Issey Miyake 작
(Collections, '91 S/S)



〈그림 16〉 Bridget Bailey 작
(The new textiles,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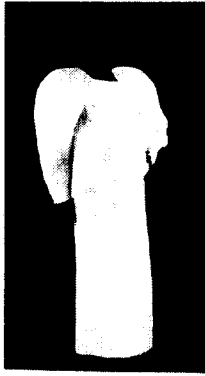
〈그림 17〉 접기
(조형연습,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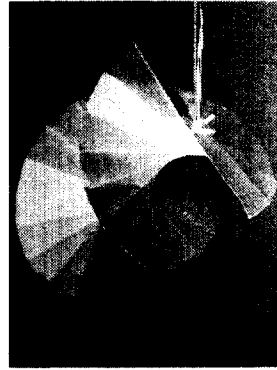
〈그림 18〉 Issey Miyake 작
(Issey Miyake 작품집, 1994, p.83)



〈그림 19〉 Hiroko Koshino 작
(Fashion news, '95 S/S)



〈그림 20〉 김정신 작
(ProTo전, 1993)



〈그림 21〉 사선접기
(종이접기의 창조성-종이접기)



〈그림 22〉 Issey Miyake 작
(Fashion show, '91 S/S)



〈그림 23〉 Junko Koshino 작
(Collections, '91 S/S)



〈그림 24〉 김정신 작
(ProTo전, 1993)



〈그림 25〉 새김질
(조형연습, p.153)



〈그림 26〉 Lan Vin 작
(Collections, '91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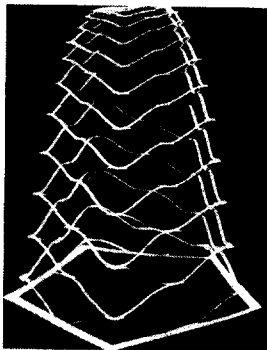
〈그림 27〉 Thierry Mugler 작
(Collection, '91 S/S)



〈그림 28〉 김정신 작
(ProTo전,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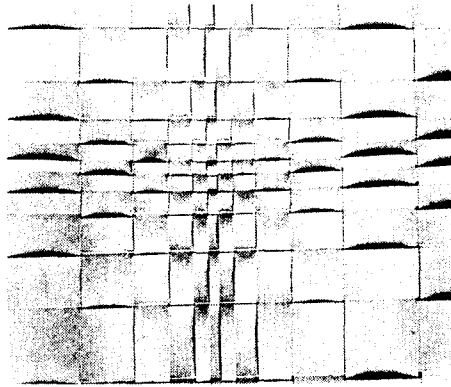
〈그림 29〉 자르기
(예술디자인 입체조형, p.96)



〈그림 30〉 자르기
(예술디자인 입체구성, p.96.)



〈그림 31〉 Thierry Mugler
(Collection, '91 S/S)



〈그림 32〉 역기
(조형연습,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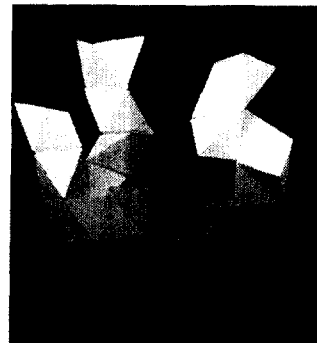
〈그림 33〉 Maurizio Galante 작
(Collezioni Donna, '91 S/S)



〈그림 34〉 설윤형 작
(Elle, '92-93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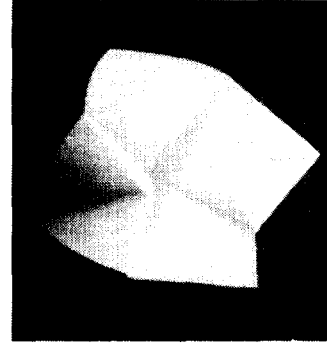
〈그림 35〉 Thierry Mugler 작
(Collections, '91-92 A/W)



〈그림 36〉 다면체 구성
(입체조형, p.192)



〈그림 37〉 김지희 작(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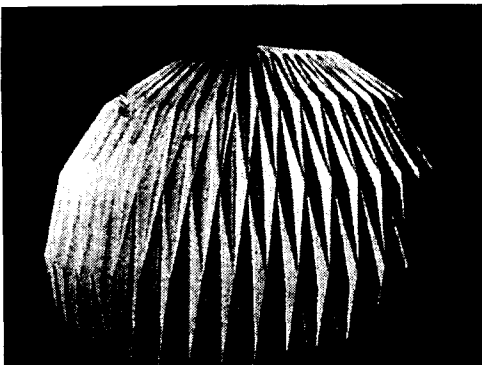
〈그림 38〉 다방향접기



〈그림 39〉 Kansai Yamamoto 작
(Collezioni, '92-93 A/W)



〈그림 40〉 Hishinu Ma 작
(Collezioni, '92-93 A/W)



〈그림 41〉 접기
(입체조형, p.44)

돋보인다.

이상과 같이 종이조형 효과는 다양한 요소로 의상에 응용되어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특히, 평면으로의 표현뿐 아니라 입체로의 표현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미적이고 구조적인 조형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종이의 조형효과를 의상디자인 아이디어 창출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여 새로운 예술표현의 장을 열고자 한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패션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

로 개성화 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의상을 자기 표현의 예술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예술로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의상 디자이너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그것을 조형화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재현 뿐 아니라, 대상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새로운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의상디자인 방법은 패션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본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는 손쉽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재료이므로 여러 가지 조형실험을 통해 새로운 조형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조형물의 이미지는 의상디자인 아이디어로 제공되어 의상디자인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같은 조형효과라 할지라도 디자이너의 개성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의상으로 형상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종이를 조형 재료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를 소재로한 다양한 형태개발을 통해 의상디자인 표현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종이 조형 효과는 의상디자인에서 다양한 디테일 구성에 의한 실루엣의 변화뿐 아니라, 재질 효과로도 응용되어 신소재 창출 방법의 하나로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종이 접기 기법은 조형 예술로서 입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두께의 증감없이 접어질 수 있는 평면적 형태의 표현과 입체감을 갖는 3차원 적 표현이 가능하다.

다섯째, 종이 조형을 통한 입체 형태의 효과는 새로운 형태미를 얻는 아이디어의 근원으로서 의상에 다양한 입체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종이조형 실험을 통해 터득되는 감각과 시각적인 조형형태를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개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의상디자인 표현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시하고, 앞으로 종이의 성질과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시키고, 종이를 조형재료로한 형태개발에 관한 연구와 종이의 조형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를 계

속해 나간다면 독창적인 의상 디자인 개발에 큰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高山正喜久, 立體構成の基礎, 東京: 美術出版社, 1984.
- 2) 권영구, 현대종이 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 3) 김선영, 종이접기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4) 김정신, 종이조형의 입체구성을 형상화한 복식디자인, 이화여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5) 朝倉直己, 紙じよら構成デザイン, 東京: 美術出版社, 1982.
- 6) 左久間八重女, 左久間烏乙子, 古典折り紙, 平凡社, 1990.
- 7) 朝倉直己, 권오현 역, 예술 디자인의 입체구성, 조형사, 1995.
- 8) 諸洪圭, 韓國史小考,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 9) “종이” 「종이대백과 사전」제 5권.
- 10)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1993.
- 11) 한스.M.빙글러, 김윤수 역, 바우하우스, 서울: 미진사, 1982.
- 12) 엄광섭, 조형 재료학, 서울: 이화출판사, 1984.
- 13) 이정성, 공예통론, 서울: 수학사, 1984.
- 14) 임연웅, 디자인 재료학, 서울: 미진사, 1988.
- 15) 윤희주, 입체구성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16) Franz Zeier, 권영걸 김현중 역, 조형연습-Papier, 도서출판: 대우, 1989.
- 17) H.W. Janson, 김윤수 역, History of Art, 서울: 삼성출판사, 1978.
- 18) Jules Heller, Paper making, N.Y. Guptil Publication, 1978.
- 19) Mark Holborn, Issey Miyake, Taschen, 1995.
- 20) The Designer's Source of ArtistsArtisans, The Guild6, Kraus Sikes inc., Japan, 1991.